



Market Index / 1일

코스피지수 ▲ 3056.53 +80.32	코스닥지수 ▲ 956.92 +28.19	유가(WTI, 달러) ▼ 52.20 -0.14	환율(원) 1USD 1138.07 100¥ 1086.31	살매 1098.93 팔매 1048.95	살매 1381.68 팔매 1327.78	살매 181.57 팔매 164.29
---------------------------	--------------------------	------------------------------	------------------------------------	--------------------------	--------------------------	------------------------

제주 극조생감귤 재배 지형 바뀌나

노지 중 맨 먼저 출하... 품질 낮아 이미지 악영향 5개 농협 대상 고품질 유라조생으로 품종 갱신

다양한 수입과일이 시장에 쏟아지며 맛좋은 감귤 생산을 통한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극조생감귤 품종갱신사업의 효과가 주목된다.

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제주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제주시·조천·함덕·애월·하귀 농협 조합원인 감귤농업인을 대상으로 극조생감귤을 유라조생으로 품종을 갱신하는 '주산단지 명품감귤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희망농가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아 극조생감귤을 고품질의 유라조생 묘목으로 갱신해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묘목 구입비와 위탁 육묘비 지원과 과원 기반 정비 등에 올해 5억원이 투입된다.

도내 극조생 감귤 재배면적(2019년산 기준)은 2810ha로, 도내 전체 감귤 재배면적(2만59ha)의 14.0%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6만3065t이다. 극조생 감귤은 노지감귤 중 가장 빠른 10월 초부터 생산되는데, 일남일호 품종이 가장 많다. 품종 특성상 당도가 8.5브릭스 안팎으로 낮고 감귤껍질에서 과육이 떨어져 공간이 생기고 껍질이 뜯는 '부

피과' 발생률도 높아 저장성도 떨어진다. 하지만 노지감귤 중에서 시장에 먼저 선보이다 보니 11월 중순부터 12월에 집중 출하되는 조생감귤과 만감류 가격 형성을 좌우할만큼 큰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일부 농가와 유통업자들이 추석 대목을 노려 달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착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출하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며 일부에선 극조생 감귤원의 폐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제주농업기술센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품감귤 만들기 프로젝트는 품종갱신용 유라조생의 대목 육성을 위탁해 농가에서는 2년생 묘목을 심어 소득미발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라조생은 당도가 11~12브릭스로 높고, 출하시기만 잘 맞추면 부피과 발생률도 낮아 최근 품종을 갱신하려는 감귤농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꼽힌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58개 농가는 올해 3월 2년생 유라조생으로

을 재배하기도 한다. 올해도 희망 농가를 신청받았는데 1일 기준 59농가(20ha)가 접수해 2월 중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농업기술센터 송상철 지도사는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지역의 극조생감귤 재배비율이 높아 해마다 감귤 출하초기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내년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고품질의 유라조생으로 품종갱신이 이뤄지면 농가소득 증대와 노지감귤 출하초기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미숙기자



달걀 가격 고공 행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급등한 달걀 가격을 잡으려 정부가 공급량을 늘렸지만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감협 '블로초' 퍼스트브랜드 대상

과수 부문서 11년 연속

제주감협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블로초'가 '2021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과수 부문에서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감협은 지난달 28일 콘래드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과수 부문에서 11년 연속 대상에 선정돼 퍼스트클래스(10년 이상 선정 브랜드)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소비자포럼 주관으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에 대해 전국 24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유선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블로초는 2002년 상표등록 후 엄격한 품질관리와 출하관리를 통해 특유의 맛과 영양이 최상위에 속하는 감귤에만 부착하는 명품 브랜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17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주감협 송창구 조합장은 "다양화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판매전략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등급화와 고급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항공 설 맞이 이벤트

제주항공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달간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항공권 기프트카드를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등 '새해 여행 북 많이 받으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물하기에서 직접 구매해 선물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두 종류다.

국내선 전 노선 주중(월-목요일) 출발이 가능한 기프트카드 편도 7만원권을 4만9000원에 판매하며, 성수기와 주말 출발이 가능한 기프트카드 편도 10만6500원권을 7만9000원에 판매한다.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는 별도다.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면 탑승인원과

날짜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효기간 중 누구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기프트카드를 구매일로부터 93일 이내에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프트카드 구매 후 등록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2월 14일까지 제주항공 SNS 채널에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항공권을 증정한다. 제주항공 인스타그램에서 댓글로 여행을 선물하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고 설날 덕담을 남기거나, 제주항공 틱톡 '세배왕챌린지'에 참여해 재밌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된다.

연미숙기자

설 대목 맞나요?... 명절 기대감도 실종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11개월만에 최저 2월 전망도 거리두기 여파로 힘겨운 상황 지속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올해 1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체감지수(BSI)가 11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같은 연중 최고 대목으로 꼽히는 설 명절이 낀 2월 전망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영향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37.5로 전달보다 12.5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2월(35.7) 이후 가장 낮았다.

1월 전통시장 BSI는 27.7로 전달 대비 22.3포인트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으로,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월(2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

이면 악화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 5인 미만(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사업체 2400곳과 전통시장 내 점포 1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25일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설 명절이 낀 2월 전망 BSI도 비판적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 BSI는 66.3으로 전월보다 25.9포인트 하락하며, 전통시장 사정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68.1로 조사됐다.

게다가 정부와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설 명절이 낀 2

월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이어 힘겨운 연초를 보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 1일 내놓은 '1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중 제주지역 업황BSI는 42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2월 업황전망BSI는 42로 전월 대비 8포인트 상승했지만 현재 기업경영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응답 업체 수가 더 많았다. 1월 중 조사대상 업체들의 경영여조사항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30.7%, '내수 부진' 23.6%, '자금 부족' 9.3%, '경쟁 심화' 8.4%로 나타났다.

연미숙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등록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귤 1,3,4년생
탕자대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레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레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